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린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강림을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3-4)고 증언합니다. 오늘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아 성령강림의 의미를 짚어 봅니다.

첫째, 오순절에 불혀 모양으로 내린 성령은 제자들을 용기 충만한 사도들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사도 2,1-14).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명을 이어 나갔고, 마침내 순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사도 7,54-60). 이와 같은 교회의 탄생, 즉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과 그 시작은 성령의 강림과 그 놀라운 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은 초기 신자들을 뜨거운 형제적 사랑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공유하므로 서로 도왔으며, 하

느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냅니다(사도 2,43-47 ; 4, 32-37). 불허 모양으로 강림한 성령은 사도들의 지혜를 밝혀주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며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아 들입니다(사도 2,1-47). 이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별(창세 11,1-9)을 거두시고 온 인류를 한데 모으시려는 당신의 구원계획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은 인종과 나라의 온갖 장벽과 한계를 뛰어 넘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합니다.

셋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위로자요 협조자이고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령의 도움이요 은총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성령에 관해 듣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가운데 특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의 은총을 은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사랑을 으뜸으로 여기며, 은사는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1코린 12,31-13,13). 오늘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열매를 청해봅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총은 용서와 평화를 우리 삶에 깃들게 할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가톨릭상지대학교 김기현 모이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둠을 이긴 빛을 만나고 성령 강림으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전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온누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어 주님이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기쁨을 받아 안고 성령에 힘입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성되어 이 전례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본기도

†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2장 1절-11절

안 내 : 오순절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묵 상 : 성령께서는 언어의 장벽,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 다양한 표현 능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코린토 1서 12장 3절-7절, 12절-13절

안 내 :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 모시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묵 상 : 다양한 은사, 다양한 활동과 직분은 공동체를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한 성령 안에 조화를 이룹니다.

부 속 가 : 매일미사 53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장 19절-23절

강 론 :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1-2쪽)

예물준비성가 :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영성체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파견하시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주시며 사명을 내리십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는 용서와 화해 체험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삶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 삶을 본받는 이에게 참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93번 ‘살아계신 주 성령’

※ 공소사목 성금

박기섭님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3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여름신앙학교 교사연수

- 일시 : 6월 10일(토) 13:30 - 11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미사 준비
- 회비 : 1인 45,000원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4

- 일시 : 6월 12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4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예신 전체모임

- 일시 : 6월 18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성과 생명 그리고 사랑과 책임'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 일시 : 6월 25일(주일) 14:00 ~ 18: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
- 신청마감 : 6월 21일(수)까지

■ 교구청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4일(성령 강림 대축일) : 춘양 본당
- 6월 11일(삼위일체 대축일) : 풍기 본당
- 6월 18일(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 화령 본당

■ 안동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시회

- 일시 : 6월 13일(화) 18:00 - 18일(주일)
- 장소 : 안동 예술의전당(5갤러리)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6월 16일(금)14:00-17일(토)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6월 19일(월) 20:00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장소 : 송현동성당
- 꾸르실리스따라면 누구나 참례 가능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6월 24일(토)14:00-25일(주일)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독서치료와 함께 하는 어머니 교실

- 주제 : 나를 알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 대상 : 주일학교 자모 혹은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일반인 포함)
- 인원 및 기간 : 10명 이내 / 주 1회 4회기
- 회비 : 총 6만원
- 장소 및 일시 : 신청분당 상황에 맞게
일시 조절하여 현장에 진행
- 신청 및 문의 : 농은수련원
054)652-0591/010-2785-0591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회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신청 : 6월 30일(금)까지
사목국 054-858-3114~5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이용안내

- 각종 세미나·연수·개인·단체피정
- 숙박·자체취사 가능
- 대강의실, 나눔방 2
- 문의 : 054-783-6684, 010-5348-3431

■ 할머니두레집 입소자 모집

- 65세 이상 여자 어르신
- 요양등급 상관없음
- 입소비 월 60만원
- 문의 : 054-541-5173, 010-6516-0191

2017년 환경의 날 담화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섭시다!

하느님은 이 땅의 백성에게 사계절 뚜렷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남용하고 훼손하고 멸종시켜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약동하던 생명의 기운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고갈시켜왔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던 4대강 토건사업은 아름다운 우리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 강물은 남조류를 포함한 녹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성 간질환을 유발하고 거기 서식해온 여러 생물들의 숨통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동부에 밀집한 산업지대의 영향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의 하늘과 땅과 물이 전부 오염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11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14개의 핵발전소가 근거리에서 밀집한 경주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붕괴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근거 없는 인식에 안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2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처리하였고, 지난 3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에서는 다수의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안쪽 철판이 부식돼 기준치 이하로 얇아지거나 심지어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리 3호기에서는 시공 때부터 격납철판에 기준치 이하 두께의 철판이 사용된 부실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안전 불감증과 중대한 결함 중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재앙의 범위가 얼마나 위중할지 참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사회와 생태계가 겪을 고통에 대해 경고하며, 지금도 선의를 가진 시민들과 연대하여, 4대강의 재자연화와 탈핵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 탈피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시며, 인간에게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창세 2,15) 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67항).

새 정부는 이미 4대강의 복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의 자제와 규모 축소,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단계적인 탈핵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 로드맵이 신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키고 생태환경의 질서와 순환을 파괴하여 성장위주의 개발경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가경영이 잘못된 ‘발전’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은 결코 단순히 GDP나 1인당 국민소득을 신속히 끌어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발전은 결코 많은 도시를 건설하거나 첨단 소재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어우러져서 존중하고 나누며 살 때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고,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발전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도 인간의 품위와 권리를 향유하고, 자연계의 미물들도 파괴와 멸종의 위협에서 벗어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오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신앙인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태계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아프게 경험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거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모두 의로운 행동에 함께 나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2017년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영주시의 후원으로 그랜드컨벤션(아모르예식장) 5층에서 <영주시교통장애인협회>의 주관으로 거행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600석이나 준비하였지만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하였고, 영주시의 각급 기관장들 역시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 되었다.

<장애인의 날>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 행사로 추진해 오다가 1989년 12월에 개정된<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약 250만 명 정도이다. 우리 국민의 5% 정도가 장애인이다. 20명 중의 한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인 중에서 10%는 선천적인 장애이고 90%는 후천적인 장애이다. 후천적 장애인 90% 중에서 50%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40%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다. 날로 질병이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들의 재활과 복지가 노인복지와 함께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등대우 폐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도나 법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이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나도 장애인이 된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골육종이란 암에 걸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왼쪽 고관절과 허벅지 뼈를 20cm 정도 잘라내는 바람에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지체4급 장애자가 되었다. 수술 후 사오년 동안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30여 차례나 병원 수술실을 드나들어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고통이 줄어들면서 재활에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영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게 바둑강의를 하게 되었고, 천주교 안동교구 소속인 보름동산에서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지금은 <장애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1주일에 3번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어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요한 9.1-3) 그동안 성서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보았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어렵풋이나마 그 뜻을 알 것도 같다.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라는 하느님의 뜻인 것 같다. 장애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사회적 소외로부터 오는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남은 여생동안 장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비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절뚝거리고 뒤통거리며 걸어가는 그런 바보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본다.